

해남군, 지역자원 활용 ‘로컬크리에이터’ 본격 육성

신규창업자 최대 5000만원 지원
서류·면접 평가 20일 까지 접수
환경개선비 등 항목별 금액 설정
관외 이주자 3~5점 가점 부여 등

전라남도 해남군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출가)를 본격 육성한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읍 구도심의 상권활성화를 전담할 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

업을 통해 신규창업자와 복합매장화 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을 거쳐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내 신규창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 복합매장화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서류평가는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아이템의 지역성, 필요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경쟁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면접평가는 위 평가 지표와 함께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

다.

지원 범위는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이나 인건비,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를 제외한 재료비와 진열대, 환경개선편비, 포장디자인 및 제작비, 홍보물제작비 등으로 항목별로 최대 지원금이 설정되어 있다.

자부담 10%와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구유치를 위해 관외에서 해남군으로 이주자에게는 3~5점의 가점이 부여되고 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 실시한 초콜릿 교육 수료자에게도 가점 5점이 부

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이나 상권활성화 추진단 누리집인 ‘www.해남상권.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고, 전자우편이나 매일시장 2층의 상권활성화 추진단 사무실(070-8648-2272)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군, 군목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

지명 담은 희귀 수종

전라남도 완도군은 지역 정체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군목(郡木)을 ‘완도호랑가시나무(사진)’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일 완도군 상징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기존 군목인 ‘동백나무’에서 지역 고유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은 동백나무를 군목으로 지정·사용해 왔으나 전국 27개 시군의 군목이 동백나무임에 따라 완도만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민 의견을 반영해 완도에서 자생하고 ‘완도’라는 지명을 담은 희귀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새로운 군목으로 지정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1978년 국내 식물학계의 권위자인 고 민병갈 박사가 완도에서 처음 발견해 국제학회에 보고된 나무이며 독특한 생태적 가치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는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사계절 푸른 녹색 잎과 빨간 열매의 관상 가치가 높은 대표 난대 상록수



종이다.

빨간 열매는 사랑과 박애 정신을 뜻하며 꽃말은 행복과 평화를 의미한다.

현재 완도군은 특색 있는 녹색 경관을 제공하고자 완도읍 시가지 진입로(국도 77호선 일원)에 완도호랑가시나무 거리 조성을 마쳤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완도군만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종이다”며 “완도의 지명이 명명된 수목을 지역 특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완도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남군, 스마트폰 앱 활용 농기계 임대 간편 예약

전라남도 해남군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농기계 임대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시 전화 또는 방문 예약만 가능했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앱에서는 트랙터, 포트요 이앙기, 농업용 굴착기 등 임대 가능 장비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 예약 현황 조회는 물론 희망일자 선택과 예약 신청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장비별 사양 정보와 사용 시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돼 초보 농업인들의 활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 농기계임대’ 앱을 내려받아 설정→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선택→임대 신청→사업소 선택→임대 예약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해남군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손쉽게 농기계 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농기계 안전 교육과 임대 품목 확대, 예약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농업인의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작업의 기계화와 효율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앱을 통한 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를 비롯해 권역별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랙터를 비롯해 총 38기종 713대의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해남읍 용정리에 위치한 본소는 5월까지 토요일 오전에도 운영한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소방서 직원이 지난 3일 강진체육센터에서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강진소방 제공

강진소방, 어린이 119안전체험장 운영

전라남도 강진소방서는 최근 강진국민체육센터 제2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 및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체험장은 어린이들에게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처요령을 몸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화재대피체험시설, 안전체험 시뮬레이션 등이 운영됐다. 특히 연기 가득한 공간을 통과하며 대

피 요령을 익히는 화재대피체험은 많은 어린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미래의 안전을 책임질 아이들에게 조기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15일 흑산도서 ‘제11회 홍어축제’ 개최

전라남도 신안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수산물인 홍어를 주제로 ‘제11회 흑산 홍어축제’를 오는 15일 흑산도 예리항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흑산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홍어의 주산지다. 깊은 맛과 부드러운 육질의 ‘흑산 홍어’는 지역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남도의 대표 진미로 꼽힌다.

매년 봄 개최하는 흑산 홍어축제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흑산 홍어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

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축제는 △홍어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풍어제 △흑산 홍어 시식회 △삭힌 홍어 먹기 대회 △홍어 깜짝 경매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인근 철새전시관, 고래공원 관람을 통해 흑산도의 또 다른 자연환경적 가치도 배워갈 수 있다.

흑산 홍어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흑산 홍어의 본고장 흑산도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가 남도의 참맛과 정취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흑산 홍어의 우수성과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널리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홍어축제 개최와 함께 흑산 홍어의 명품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흑산 홍어잡이 어업은 2021년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목포시, 나주시와 함께 홍어 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도 체결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목포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2021년 10월 화물선 기름유출사고(202만원) △2022년 7월 준설회선 침수사고(300만원) △2024년 7월 여객선 기름유출사고(30만원) 등이 있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